

갑지녹이라



[해제]

형실록 이라는 표제(表題)와 함께 ‘갑술년 춘삼월 용궁면 무티실 이씨택(李氏宅)’이라는 필사본의 표지에 작자와 필사(筆寫) 시기에 대한 단서가 제공되고 있으며, <어와 따님요>의 말미에 “갑술 삼월 초”라는 제작 년대와 실제의 작자로 보이는 “이만의”와 “이소재”라는 인명이 나타나고 있다. 필사본 형실록 에는 <당산조선가>, <어와따님요>, <갑진록이라>, <우미인가라> 등 4편의 가사가 실려있는데, <당산조선가>와 <어와따님요>는 그 시대의 여식(女息)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실과 덕목을 노래한 규방가사이다. <갑진록이라>는 임진왜란 이후 13년째인 갑진년(1604)에 사명당(四溟堂)이 일본에 건너가 왜왕을 항복시키고 임진년의 원수를 갚고 돌아왔다는 내용의 우국가사로 보이는 작품이다. 그리고 <우미인가라>는 초패왕(楚霸王) 항우(項羽)가 한(漢)나라 고조(高祖) 유방(劉邦)과의 해하성(垓下城) 전투에서 패하고 사면초가의 막다른 상황에 이르러 그가 사랑했던 연인 우미인(虞美人)과 이별하는 내용을 노래한 여성가사이다. <당산조선가>는 남녀가 유별했던 시대에 특히 결혼한 이후 친가(親家) 방문이나 벗들과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했던 여인들의 입장을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갑술년(甲戌年) 정월(正月) 이 소망을 이루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어와따님요> 역시 전반부에서는 여자의 본분을 충분히 익힌 다음 시집가서는 시부모 봉양 및 효우현심을 잘하여 며느리로서의 소임을 다하라는 친정어머니의 당부에 이어 후반부에서는 갑술년 정월 모처럼 친가를 방문하여 여러 친지 가족들과의 소풍 및 율놀이로 회포를 푸는데 이어 다시 시댁에 돌아가서는 남의 칭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어머니의 각별한 당부로 끝을 맺고 있다. <갑진록이라>는 조선 중기의 승려로서 승병을 이끌고 왜군과 싸워 혁혁한 전공을 세운 사명당(四溟堂)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것인데, 특히 그가 임진왜란 이후 13년째인 갑진년(1604)에 일본 사신으로 건너가 왜왕의 항복을 받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우미인가라>는 무인년(戊寅年)에 지어진 작품으로 초패왕(楚霸王) 항우(項羽)가 해하성(垓下城) 전투에서 한(漢)의 유방(劉邦)에게 패하고 난 다음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는 동시에 사랑했던 우미인(虞美人)과 이별하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원문]

갑지녹이라
 화설익씩 임진연후 십삼여 갑지연
 춘삼월의 평안연광정 낙산스의서 한중이
 잇시딕
 흥중의 녹도상약과 천문조화를 승통하더라
 일일은 천기를 살피보니
 왜왕이 넘진연 원슈을 갑푸리라하고
 군스을모와 조선을 침범코져하난 기식잇거날
 셔산딕사 싱하면 진실노 종묘와
 사직을 안보키 어려온각 후딕
 이제 왜놈이 조선을 침범후면
 진실노 종묘와 사직을 안보키
 어려오니 닌아모리 산중의 짓체후신들
 조선슈토을 먹고 국스을 도라보지

안니허리오 허고 직시 축복허고
육흔종을 잡고 경성의 올라가서
좌부성지를 보고왈 소심은 평안도연광
낙산사의이난 중이압더니 전하씨 뵈움을
청하압난이다 승지를 보고왈
소승은 편안도 드러가니 연유을
안이딴와이 드르시고 직시딴사를 청허신이
딴사뵈쳐 사지흔이 딴와이 물왈
네무삼 연고로 짐을보고져 하난야
그중이 복지쥬왈 소승 평안도
낙산사의 잇삽튼이 임진연의 딴왕기압서
난을 당하엿딴 소승은 시승의
일척중승 하와도 굿씩 국스을
도라보지 못온시 만사무심 이로소이딴
딴왕이왈 네중으로서 국스을 싱각흔이
기특허다 허시고 쏘물왈 네무손
연고로 짐을 차자왓난야 딴사쥬왈
소승이 중간 천기을보온이 왜놈이
임진연의 원슈을 갑푸리라 허고
조선을 치고져허난 기식이 잇사오니
김흥셔 강홍엽이 죽어 갓가오니
네라셔 상군절월과 딴원수인스을 가시고
왜놈을 딴적허오리잇가
나오지 안이허여셔 미리방비할도리이나이다
허그날 딴왕이 딴성무왈 네무삼
묘척이 이난요 딴사쥬왈 소승은
상지 사명당이라 허난중이 잇스딴
팔만딴장경을 능통허고 신증을 부리나
둔갑이 잇사오니 불어 보압시고
일본스신을 부리시면 왜왕을 흥복밧고
오리라허고 허거날 딴왕이 딴히하여
즉시 사명당을 부르신딴 사명이
명을뵈자와 경성의 올라가 전하게뵈오이
딴왕이왈 너으말을 드른이 둔갑천문을
흥중의 품엇고 신승을 부리난직조
잇다허오니 일본드러가 왜왕 항복밧고
무사이 도라와 짐을다시 보기하라
하시딴 사명당이 복지쥬왈 소승이비록

삭발의승 하였소나 본국슈스도를 먹삼고
그만소임을 슈후중온들 사양하오리잇가
왜왕을 항복받고 수이도라 오리라하고
직시 하직하고 발횡할시 비히못닉
총찬하시고 각도열읍의 회당 하였시딕
조선스신 사명당이 섬무리 디위국으로
사신간다 하였드라 각읍이 선문을보고
지경의 나와마자 못닉총찬 하면서
무사이 도라오라 호오며 못닉왕축호드라
봉명스신이 기을찌난 십열일 만의
경상도 동닉을 득달하여 삼일을
유숙하딕 동닉분손 송침이왈 속인도
만컨만는 구튀여중을 타국사신으로 보닉난고
하면 삼일되도록 나와보지 안이호난지라
사명당이 심각하딕 제조고만흔 소임을
맛튼다고 나을중이라고 즉시나와보지 안이호니
분흥을 이기지 못호난지라
무순호령하여 동닉분손을 납입하라 훈이
녹부손 영으로돏고 직시부산을 낫님하여
술님슈죄왈 닉왕명을 밧자와 사신으로
철이타국의 드러왔거든 각도부산 슈령드리
지경의마즈 심이식 전별하거든 그딕난
무삼쓰시 국사을 도라보지 안하고
한갓문호와 흥봉만 자랑하여 나을죽일다시
박딕 좀시훈이죄 막사무석이라 하여
부손을 호령하여 선참후기 하라하고
동닉부손 죄목이 엇차엇차 호오미
또선총후 호연난이다 중문을올인 발횡하여
빅을탄이 슝공이 빅을저허 벽희의
동실동실 찌난간이 빅빠르기 살갓튼지라
삼일만의 일본을 드러가 왜왕게
선문을 보닉딕 조선국스신 칭불리
사명당이라 하였거날
왜왕이 그선문을보고 제신모와 의논왈
조선갓한 중국의 엇지 칭부리
잇시리요 하거날 예부상셔 제랑쥬왈
시상사을 아지못호난이 달이 마압시고
삼척육십자 평운을만들고 일만일천 지글을지여

평풍의 붓치여 남티문 동편의셔우고
등축을 발키고 황혼이되거든 철이춘조
말을티와 순식간의 당당하여 사처의든후의
외오라후여 외오면 심부리 적실흔이
못죽일 거시오 못외오면 죽일도리
잇난이다 혼이 황제 올힌여그
잇튼날 압문의 평풍과 등축을
빅설하고 황혼의 사명당을 철이춘총을
티어나난 다시드러갈식 사명당이 마상익셔
자수를 살펴본니 등축을 불키고
동익평풍을 세우고 무슈흔 글기을써
붓치거날 물밧티 넋짓소고 성중드러간니
왜왕이 나와 예필조 정후익
문필스신이 심불리라흔이 드러오난기릭 평풍익글을
외우라흔니 식명당니 아손심부리되여
이만흔그을 외우지 못홀진틴 엇지
일국이 드러와 일황제를 황복바들
싱각을 후오리요후고 이날밤 숨경익
시죽후여 이튼날 오시가지 외운이
일만일천 팔빅지그을 위우거날 슈십지난
엇지위우지 안하난야 식명당니 답왈
보지못글을 엇지 위우리요 하거날
왜왕이 즉시 스신을 보니여
평풍익글을 적간하니 단연 두접이
바람의 붓치여 겹치여 난지라
그딕로 쥬달흔이 황제며 을숙익
묵묵히 안조다가 본궁으로 드러
지신을모와 이논왈
조선사신이 심불리 적실흔 엇지하리요
하시거날 또한 신후쥬왈
달이마압고 이압히 천길못시 잇스온니
구리쇠 방석을 만드려 물우썸지
안지라 후오면 진실노 붓치라도
빠져 죽사오리다 후거날 왜왕올히여
잇튼날 물가의나가 스신을 청후여
그딕은 붓치라흔이 저물릭 구리쇠방을
쌀고안지라 혼이 식명당이 답왈
붓치가되여 그까지 지조를 염여하요

구리쇠 방성을 가져오라 하여
물우의 썬진이 과연 쓰난지라
츠시야 그우의 드러안자 팔만디증경을
외울식 동풍이불면 셔으로 향하고
남풍이불면 북으로 향하고 동편의
근접흔이 왜왕보고 디경질식하여
아모리 활줄을물나 본국의 도라와
지신을모와 의논왈 조선사신이 침부리
적설흔이 엇지하리요 한이또한 신하쥬왈
달이마압시고 명일은 디연을 비설하고
오식방석을 마드러 비단공단 명쥬모단
빅목방성을 만드러 자우의 늦코
사신을 청하여 안지라 하오면
빅목 방석의 안지면 침불리요
비단 방석을 취하면 미무리온니
비단 방석을 취하면 죽일뭇척이
인난이다 허거날 왜왕이 올힌여겨
잇튼날 디연을 비설하고 오식방석을
좌우 버러늦코 스신을 청흔이
스명당이 예석의 나아간이 오식방성을
노와거날 빅목방석의 좌정하니 왜왕이왈
그디난 붓치하면서 비단방석을 슬타하고
엇지 빅목을 취하난야 사명당이왈
옛뵈름 증은 속인이라 먹고입난거시
다사치흙을 슬허허난지니 빅목방석은 나무쫓치요
비단방석은 진중의세고 미물엇지 최금허리요
왜왕이 고기을 숙여 묵묵부답이라
존초을 득하고 본궁의 도라가
지신을 모와 이논왈
스명당이 침부리 적설흔이 엇지허리요흔디
예부승셔 등총정쥬왈 붓체라도 혈가죽일
뭇침이 업실될가하고 구리쇠로 일간을두고
지옥을치고 박그로난 금지도벽하고
사신을 청하미 그집의 드러안지라하고
철문을닷고 디풍제을노와 불면 혼칙이라도
남지뭇하리라 혼이 황제올힌 여겨
잇튼날 구리쇠로 일간두목을 짓고
사신을 청하엿드라 혼이 사명당이

엇더헌 흥계을알고 스벽의 물설조를
써붓치고 구리의 여렴빙조를 써고온자
팔만디장경을 외올시 일본사람이 디풍기을받낫
잇튼날로 불리 박그로녹가 흐르난지라
그리도 안으로난 빙고갓고 닉동리분명한지라
잇튼날 왜왕이 굿탄왈
조선사신이 혼탁인들 남지못하고 죽어쏘다하고
무스를 명하야 철문을 열고보니
스신이 어렴중우의 안조신이 눈섭의
셔리쓰엇고 쇠엄의 고드름이 쥬릉쥬릉
달잇고 스방벽의 셔리빗칠너라
스명당이 왜왕놈을 호령왈
너의일본이 남방이라 덤다흐든이 엇지이리
춘운요흐니 날무스 드르와 왜왕게 고히이
왜왕이 디경혀여왈 제신을 득러왈
흐날리 임이니신 칭불리라 엇지하야
스신을 죽일고 조선을 나가
임제의 원슈을 갑푸리요 흐신디
쏘하신희쥬왈 달이마압시고 그리로말을 만드르
디풍기로 붓쳐달라 가지고 타라혀거날
이제 진실로 붓체라도 턱와죽그리다
혀거날 왜왕이 울힌여기
즉시 말을만드러 세우고 디풍기로
달라가지고 스신을 청하여 그디칭부리라흔이
져말을타고 혼직각이라 혼디 스명당이
칭각혀디 기다섯가지 모친중의 지일어려운지라
조선을 향하야 스벽하고 팔만디장경을
외올시 무후흔 쇠구름이 북으로오며
비가 박으로 푸는다가 오거날
일본 조정의 물결이 총히갓튼지라
섬중릭성이 물희써서 죽는직 부지기수라
스명이 호령왈
너의황제 머리을 빠히올이면 비을거게하고
칭만을 술기혀련이와 그르치 아이하면
일본을 디히을만드리라
밭비흥셔을 써올이고 존명을 보전하라혀디
스명당이 스히신중을 호령왈
너의드리 일번디절릭 드르가 네성병역이

천지을 진동하고 뒤우가 박으로푸난듯
오기하라 훈디 왜왕이 정신을일코
시승을 분별치 못하고 눈을쓰고보니
뒤절릭 물결리 점점 더후난지라
왜왕이 황황급급하여 인끈으로 목을미고
식명당 압피나가 퍽퍽 소리하고
부조지국으로 향셔을 써올이라 후거날
스명당이 호령왈 존명을 보전하고저
후거든 연연일피 삼빅종식 조공하고
향셔을올리라 한디 왜왕듯도 빅왈
죽은들 엇지 이향셔를 후오릿가
스람이 죽그면 가족붓툼 써난지이
스람을 벽기야 가족이 승치안이힐거신이
진실노 임뒤로 연연 조공을후면
일본이 빌주빅온들 엇지후리요 훈디
스명당이 호령왈
그르면 네머리을 빅혀오라 후이
왜왕이 후일업셔 임피 승빅장시
조공후 후오셔와 부조지국으로 붕후여
올이거날
스명당이 바다보고 일일히 신후을
불너보고 인끈을 쓸너드리라 후고
왜왕을 옥의가두고 슈죄왈
그뒤나 님진여의 무슴연고로 청정과
속섭을보닉여 ㅅㅅ 평후 조선을 요란키후여
무죄후 인심을 무슈이 죽이고
쏘무슴쓰지 총반다시 반후여 조선을
치고저 후난야 우리 뒤왕의
성덕이 스방의 가득 후기록
영풍호걸이 구름뭉툼 후고 조선이
예이지방의뒤 심부리 철석갓치 쓴치지
안이후난지라 만일반할쓰절 다시 두가는
일천붓쳐 후기나와 일본을 동히빅을
만드리라 추후의 부뒤 반심을
먹지마라 훈디 왜왕이 사빅하고
소왕이 비록 무지후온들 조선붓친임은
가라치심을 거영후오릿가 추후의난 진취하신뒤로
후오리다 후며

직시 존초을 비설하고 질기드니
잇튼날 상명당 발흥홀시
왜왕니 밧기나와 전송하며
예단을 무슈히 드리거날 스명당이왈
붓찬난 본디 탐지가 업는지라
예단을 물이치고 인피 삼복장을
연연 조공하라 만일 삼복장중의
훈장이라도 안이오면 일천보치 흥게나와
일본인석 업시홀거신니 부디조심 하라하고
인하여 길을써나 물가의 다다르니
스공이 기다리거날 비을탄이 만경창파
술강치검 와서 조선지경의 득달하여
흥복바든 흥셔를 봉하여 전하기올이고
여러날만의 경성의 올나가 전하비온디
디왕이 철니타국 드러가 왜놈을
항복밧고 무스이 도라와 짐을보이난이
천의업난 공니라 하시고
직시 서산디사와 스명당을 공닐를써
별술을 쥬실시
셔산디스는 병조판의겸 영의정을 씨기시고
스명당으로 판의금 도원슈을 하신이
디사복지 쥬왈 조판당으로 중척을
치이섬은 희망극하여이다하고
벼사을 가라쥬압시면 산중의더러가 불도를
송상하고져 훈나이다 하디
디왕본디 의연하나 마지못하야 디사을
가라쥬거날
귀시스를 숙막초지고 물너나와 신게하직하고
만조복관이 몬디 의연하며 전별하드라
경성을 하직하고 평온도를 못이독홀하여든이
군수의 디왕이 드르시고
새스디스와 스명동의 공노을 심각하여
계량부스를 쥬시고 일흠을 천츄의
빈나기 하러라
잇디 디왕이 인피 삼복장식
브쳐조공하고 심각하니 연연이 심각하라
가등일본니 망홀거신니 조선의 사신을본니여
이연유을 쥬왈하여

종니쌍의 여갓치고 군사을 삼척명식
범을셔우고
늦시 삼만육천근과 덕석 삼만육천근과
동철 삼만육천근과 구리 삼만육천근과
박복 삼만육천근을 연연이 죠공하고
부자히을 비푸리라
각설잇디 의명천자가 조선서 일본황복
바던디 문물보시고 조선국 벼살
금자강녹 태후을 봉히시고 선산디사와
사명당이라 흐신니 일흠미 디국의
진동히더라
허한 이만 굿치노라

우미인가라

천하샘향 강남국의 산도조코 물도조타
아황미인 쥬근후의 무산선녀 노던고디
만고절식 고운여즈 우미이니 식로난니
우공자피 닷님이요 초피왕의 미인이라
미인일고 고우시고 미인티도 비송히드
단청으로 기리닌듯 디옥으로 갓갓난듯
팔자아미 고운양은 운무중의 명월니요
옥빈홍안 고운티도 추강상의 반달니라
심오심육 모던시절 초피왕을 만니듯다
장홀시고 장홀시고 우리디왕 장홀시고
녁마도산 기꺾다 용천금을 미켜들고
우쥬간의 회헝히여 음양질타 흐난솔의
어난금이 디첫히디 훈문사지 ∞∞성의
파산되고 유정장니 심만명마 수수사의
뭇셔젯다 예사마난 명중니난 유탁중의
도사디고 칼잘시난 향양이난 선몽장이
되야새라 동산과 기력이을 활촉짓티
짓여들고 오쥬마 지난말을 회마뒤쳐
놉피타고 총원 천자 흐라하고 셔잇난중
흐오르섬 외곳갓탄 우미닌은 여넉담아

[현대역]

갑지녹이라

화설(話說)1이때 임진년(壬辰年)2후 삼(十三)여 갑진년(甲辰年)3
 춘삼월(春三月)에 평안도(平安道)연광 낙산사에 한 승려있으니
 흉중(胸中)에 육도상약(六道上藥)4과 천문조화(天文造化)5를 상통하더라
 하루는 천기(天氣)6를 살펴보니
 왜왕(倭王)이 임진년의 원수(怨讐)를 갚으려고
 군사(軍士)를 모아 조선을 침범코자하는 기색있거늘
 서산대사(西山大師)7 살았으면 진실로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안보(安保)하기 어려웠을텐데
 이제 왜놈이 조선(朝鮮)을 침범하면 진실로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안보하기 어려울 것이니
 내아무리 산중(山中)에 지체(遲滯)8한들
 조선의 수도(水土)를 먹고 국사(國事)를 돌아보지 아니하리오
 하고 즉시 착복(着服)하고
 육환장(六環杖)9을 짊고
 경성(京城)에 올라가서 좌부승지를 보고 말하기를
 소승은 평안도연광 낙산사의 중으로
 전하(殿下)께 뵈기를 청하나이다
 승지(承旨)10를 보고 말하기를 소승은 평안도 들어가니
 연유(緣由)를 아니 들으시고 즉시 대사(大師)를 청하시니
 대사부처 사지하니 대왕(大王)이 묻기를
 네 무슨 연고(緣故)로 짐(朕)11을보고자 하는가
 그 중이 아뢰기를
 소승 평안도 낙산사에 있었는데
 임진년에 대왕께서 난(亂)을 당하였으되
 소승은 시승(詩僧)12으로 일척중생(一擲衆生)13 하여도
 그때 국사(國事)를 돌아보지 못하고
 만사무심(萬事無心)14 이로다
 대왕이 이르기를 네 승려로서 국사를 생각하니
 기특하다 하시고 또 묻기를
 네 무슨 연고(緣故)로 짐을 찾아왔는가
 대사왈(大師曰) 소승(小乘)이 잠깐 천기를 보나니
 왜놈이 임진년의 원수를 갚으려고
 조선(朝鮮)을 침범하려는 기색(氣色)이 있으니
 김흥서 강홍엽이 죽어 아까우니
 누라서 상군결원(廂軍結怨)15과 대원수(大元帥)16 인사를 가시고

왜놈을 대적(對敵)하올까 나오지 아니하여서
 미리 방비(防備)할 도리(道理)17 있나이다 하거늘
 대왕(大王)이 대성(大聲)하여 묻기를 네 무슨 묘책(妙策)이 있는가
 대사왈 소승에게 상재(上才)18사명당(四溟堂)19이라는 중이 있으니
 팔만대장경을 능통하고 신장(神將)20을 부리는
 둔갑(遁甲)이 있사오니 불러서 보시고
 일본사신(日本使臣)을 시키시어 왜왕을 항복받고
 오게 하라 하거늘 대왕이 대희(大喜)21하여
 즉시 사명당을 부르시니 사명당이
 명을받고 경성(京城)에 올라가 전하(殿下)뵈오니
 대왕 이르기를 너의 말을 들으니 둔갑천문(遁甲天文)을
 흉중(胸中)에 품었고 신장을 부리는 재주
 있다하니 일본들어가 왜왕을 항복받고
 무사히 돌아와 짐을 다시 보도록하라
 하시니 사명당이 복지주왈(伏地奏曰)22
 소승이 비록 삭발한 승려되어
 본국(本國)의 수사(首寺)23도를 맡고
 그 소임(所任) 막중하온들 사양(辭讓) 하오리잇가
 왜왕을 항복받고 빨리돌아 오리라하고
 즉시 하직(下直)하고 발행(發行)24하니 흔쾌히
 칭찬하시고 각도열읍(各道列邑)25에 하달(下達)하였으니
 조선사신 사명당이 섬나라 일본(日本)으로
 사신(使臣)간다 하였더라 각읍이 선문(先文)26을보고
 지경(地境)에 나와 맞아 못내 칭찬 하면서
 무사히 돌아오라 하면서 양축(仰祝)27하더라
 봉명사신(奉命使臣)28이 길을 떠난 십여일만에
 경상도(慶尙道) 동래에 도달하여 삼일을 유숙(留宿)하니
 동래군수 송생이 왈 속인(俗人)도 많을텐데
 구태여 승려를 타국(他國)의 사신으로 보내는가 하면서
 삼일이 되도록 나와 보지 않는지라
 사명당이 생각하되 재주 그만한 소임(所任)을 맡는다고
 나를 중이라고 즉시 나와보지 아니하니
 분(忿)함을 이기지 못하는지라
 무슨 호령(號令)하여 동래부사를 납입(納入)29하라하니
 부사(府使) 령(令)을 듣고 즉시 부산(釜山)을 출발하여
 군수 추죄(追罪)왈 내 왕명(王命)을 받고 사신으로
 천리타국에 가려거든 각도 부사(府使)30 수령(守令)들이
 지경에 나와 전별(餞別)31하거든 그대는 무슨 뜻에

국사(國事)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갓 문호(文豪)³²와
 한갓 학문(學問)만 자랑하여 나를 박대(薄待)하는가
 이죄 무지막지(無知莫知)라
 부사(府使)를 호령하여 선참후보(先斬後報)³³ 하라하고
 동래부사 죄목(罪目)이 여차여차(如此如此) 하오니
 또 선참후보(先斬後報) 면하나이다
 장문(狀聞)³⁴을 올리고 발행(發行)하여
 배를 타니 사공이 배를 저어碧海(碧海)에
 동실동실 떠나가니 배 빠르기 화살갈더라
 삼일(三日)만에 일본에 들어가 왜왕 그 선문(先文)³⁵을
 보건데 조선국사신 생불(生佛)³⁶의 사명당이라
 하였거늘 왜왕이 그 선문(先文)을 보고보고
 제신(諸臣)모아 의논(議論) 왈
 조선같은 중국(從國)에 어찌 생불이 있으리오 하거늘
 예부상서(禮部尙書) 제랑이 아뢰기를
 시상사(詩詳事)³⁷를 알지 못하느니 달리 말으시고
 삼백육십자 평운(平韻)³⁸을 만들고 일만일천
 귀글³⁹을 지으며 병풍(屏風)에 붙여서
 남대문 동편에 세우고 등촉(燈燭)⁴⁰을 밝히고
 황혼(黃昏)이 되거든 천리춘조(千里春鳥) 말을태워
 순식간에 당당(堂堂)하여 이곳에 들어와
 외우라하여 외우면 생불이 적실(的實)⁴¹하니
 못 죽일 것이오 못 외우면 죽일 도리(道理) 있느니라
 하니 황제(皇帝) 옳다여겨 이튿날
 앞문에 병풍(屏風)과 등촉(燈燭)을 배설하고
 황혼(黃昏)에 사명당을 천리춘조 태워서
 다시 들어가니 사명당이 마상(馬上)에서
 좌우(左右)를 살펴보니 등촉을 밝히고
 동편에 병풍(屏風)을 세우고 무수한 글귀를 써
 붙이거늘 물밑에 년짓⁴²쓰고 성중(城中)으로 들어가니
 왜왕이 나와 예필자 쓴 후에
 문필사신(使臣)이 생불(生佛)이라 하니
 들어오는 길에 병풍의 글을 외우라하다
 사명당(四溟堂)이 벌써 염려(念慮)되어
 이만한 글을 외우지 못할 것 같으면
 어찌 일본에 들어와 황제를 황복(降伏)받을
 생각을 하오리오 하고
 이날 밤 삼경(三更)⁴³에 시작하여 이튿날

오시(午時)44까지 일만일천 팔백자를 외우거늘
수십자는 어찌 외우지 아니하는가
사명당이 답왈(答曰) 보지도 못할 글을
어찌 외우리오 하거늘 왜왕이
즉시 사신(使臣)을 보내어 병풍(屏風)에
글을 적어내니 단연 두 장이
바람에 날리어 겹쳐서 나는지라
그대로 주달(奏達)45하니 황제(皇帝)는
묵묵히 앉았다가 본궁(本宮)으로 들어가
제신(諸臣)을 모아 의논왈(議論曰)
조선사신이 생불이 적실하면 어찌하리오 하거늘
또 한 신하(臣下) 주왈(奏曰)
달리마시고 이 앞에 천길 못(池)이 있어오니
구리쇠 방석(方席)을 만들면 물위에 뜨지않더라
하오면 진실로 부처라도 빠져 죽사오리다
하거늘 왜왕 오히려
이튿날 물가에 나가 사신을 청하여
그대는 부처라하니 저 물에 구리쇠 방석을
깔고 앉ारा 하니 사명당이 대답하기를
부처가되어 그까지 재주를 염려하리오
구리쇠 방석을 가져오라 하여
물위에 던지니 과연 뜨는지라
잠시후 그위에 들어앉아 팔만대장경을
외우니 동풍(東風)이 불면 서(西)로 향하고
남풍이 불면 북으로 향하고
동편에 근접하니 왜왕이 보고
대경실색(大驚失色)46하여 아무도 할 줄을 몰라
본궁으로 돌아와 제신(諸臣)을 모아 의논왈
조선사신이 생불이 적실하니 어찌하리오하니
또 한 신하 주왈(奏曰)
달리말으시고 명일(明日)은 대연(大宴)을 베풀어
오색(五色)방석을 만들어 비단공단(緋緞貢緞)47 명주모단(明紬牧丹)48
백목(白木)49방석을 만들어 좌우에 놓고
사신을 청하여 앉으라 하여
백목방석에 앉으면 생불이요
비단방석을 취하면 미물(微物)50이오니
비단방석을 취하면 죽일 묘책(妙策)이 있나이다
하거늘 왜왕이 옳다여겨

이튿날 대연(大宴)을 배설하고 오색방석을
좌우에 벌려놓고 사신을 청하니
사명당이 예석(禮席)에 나아가니
오색방석을 놓았거늘 백목방석에 좌정(坐定)하니
왜왕 왈
그대는 부처라면서 비단방석을 싫다하고
어찌 백목을 취하는가
사명당 왈 옛부터 중은 속인(俗人)이라
먹고입는 것에 사치함을 싫어하느니
백목방석은 나무 꽃이오 비단방석은 진중(珍重)51의 최고
미물(微物)이 어찌 취하리오
왜왕이 고개를 숙여 묵묵부답이라
잔치를 다하고 본궁(本宮)으로 돌아가
제신(諸臣)을 모아 의논 왈
사명당이 생불이 적실하니 어찌하리오 하니
예부상서(禮部尙書) 등창정 주왈
부처라도 혈가족일 못침이 없이될까하고
구리쇠로 일간두옥(一間斗屋)52을 짓고
밖으로 금지도벽(禁地塗壁)53하고 사신을 청하매
그 집에 들어앉으라하고 철문을 닫고 대풍기를 놓아
불면혼백(不眠魂魄)54이라도 남지 못하리라하니
황제 옳다고 여겨
이튿날 구리쇠로 일간두옥(一間斗屋)을 짓고
사신을 청하였더라 하니
사명당이 이러한 흉계(凶計)를 알고
새벽에 물수자(水)를 써붙이고
구리에 얼음빙자(氷)를 쓰고 앉아
팔만대장경을 외우니
일본사람이 대풍기를 밤낮 이튿날로 불러
밖으로 녹아 흐르는지라
그래도 안으로는 얼음같고 냉동(冷凍)이 분명한지라
이튿날 왜왕이 개탄(慨嘆)55왈
조선사신이 혼백(魂魄)56인들 남지 못하고
죽어도 다하고 무사(無事)를 명하여
철문을 열고보니 사신이 얼음장위에 앉았으니
눈썹에 서리쌓였고 수영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고 사방벽에 서리빛 일어나
사명당이 왜왕을 호령왈 너희 일본이

남방(南方)이라 덩다하더니 어찌 이리 추운가하니
무사 들어와 왜왕께 고하니
왜왕이 대경(大驚)57하여 왈 제신을 들라하니
그대가 생불이라 어찌하여 사신을 죽일까
조선을 나가
임진의 원수를 갚으리오 하신데
또 한 신하 주왈(奏曰)
달리말으시고 그리로 말을 만들어
대풍기로 붙여달라 가지고 타라하거늘
이제 진실로 부처라도 태워죽으리다
하거늘 왜왕이 옳다 여겨
즉시 말을 만들어 세우고
대풍기로 달라서 사신을 칭하여
그대 생불이라하니 저말을타고 한직각이라
사명당이 생각하되
그 다섯가지 묘책중에 제일 어려운지라
조선을 향하여 사배(四拜)하고 팔만대장경을 외우니
무수한 떼구름이 북(北)으로 오며
비가 밖으로 몰려오거늘
일본 조정(朝廷)에 물결이 창해(滄海)58같은지라
섬중의 백성(百姓)이 물에 떠서 죽는자 부지기수라
사명이 호령 왈
너희 황제 머리를 베어오면
비를 그치게하고 목숨만을 살게 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일본을 대해(大海)를 만들리라
바빠 항서(降書)59를 써올리고 잔명(殘命)을 보전하라하니
사명당이 사해신장(四海神將)60을 호령 왈
너희들이 일본대절에 들어가
뇌성벽력(雷聲霹靂)이 천지를 진동(振動)하고
대우(大雨)가 밖으로 치는듯 오게하라하니
왜왕이 정신을 잃고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눈을 뜨고보니 대궐(大闕)에 물결이 점점 더하는지라
왜왕이 황황급급(惶惶急急)61하여 인(印)끈62으로 목을메고
사명당 앞에나가 뽁뽁 소리치고
부자지국(父子之國)으로 항서(降書)를 써올리라 하거늘
사명당이 호령 왈 잔명(殘命)을 보전(保全)하고자 하거든
매년 인피(人皮)63 삼백장씩 조공(租貢)64함이 어떠한가
왜왕이 듣고 왈

죽은들 어찌 이 항서(降書)를 쓰오리잇가
사람이 죽으면 가족부터 씩는지라
사람을 벗겨서 가족이 상하지 아니한 것이니
진실로 이대로 매년 조공을하면
일본이 벨주(誅) 배운들 어찌하리오 한다
사명당이 호령 왈
그러면 네 머리를 베어오라 하니
왜왕이 할수없이 인피 삼백장씩 조공을 하오며
부자지국(父子之國)으로 봉(封)하여 올리거늘
사명당이 바라보고
일일이 신하를 불러보고 인끈을 끌러라하고
왜왕을 옥(獄)에 가두고 취조(取調) 왈
그대는 임진년에 무슨 연고로
청정65과 삭섭을 보내어
태평한 조선을 요란케하여
무죄한 인생을 무수히 죽이고
또 무슨뜻에 다시 조선을 치고자하는가
우리 대왕의 성덕(聖德)이 사방에 가득하기를
영웅호걸(英雄豪傑)이 구름모이듯 하고
조선이 예의지방(禮義之邦)이니
생불이 철석(鐵石)같이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만일 반(反)하고 다시하면 일천의 부처 함께나와
일본을 동해(東海)바다를 만들리라
차후에 부디 반심(反心)을 먹지마라 하니
왜왕이 사배(四拜)66하고 소왕이 비록 무지하온들
조선부처님의 가르치심을 거역할까
차후에는 지시하신대로 하오리다 하며
즉시 잔치를 배설(排設)67하고 즐기더라
이튿날 사명당 발행(發行)하니
왜왕이 박에나와 전송(餞送)하며
예단(禮緞)을 무수히 드리거늘
사명당이 왈
부처는 본디 탐재(貪財)68가 없는지라
예단을 물리치고 인피(人皮) 삼백장을
매년 조공(租貢)하라 만일 삼백장중에
한장이라도 아니오면 일천부처 함께나와
일본인을 없앨 것이니 부디조심 하라하고
인하여 길을떠나 물가에 다다르니

사공이 기다리거늘 배를타니 만경창파(萬頃蒼波)69
화살같이 와서 조선지경(朝鮮之境)에 도달하여
항복받은 문서를 봉(封)하여 전하께올리고
여러날만에 경성에 올라가 전하를 뵈오니
대왕 이르기를
천리타국 들어가 왜놈을 항복받고
무사히 돌아와 짐을보니 전(前)에없는 공이라하시고
즉시 서산대사와 사명당을 공적을써 벼슬을주시니
서산대사는 병조판서겸 영의정을 시키시고
사명당으로 판의금 도원수를 명하시니
대사 복지주왈(伏地奏曰)
조판당(調辦當)70으로 벼슬을주심 은혜망극 하여이다하고
벼슬을 갈아주시면 산중의 들어가
불도(佛道)를 숭상(崇尚)할 것이라 하니
대왕본래 의연(依然)하나 마지못해 대사를 가라주거늘
돌아가기를 마음먹고 물러나와 신께 하직하니
만조백관(滿朝百官71)이 못내 애연(哀然)하며 전별하더라
경성(京城)을 하직하고 평안도를 못이르렀더니
그사이 대왕이 들으시고
서산대사와 사명당의 공로(功勞)를 생각하여
계량부사(計量府使)72를 주시고 이름을 천추(千秋)73에
빛나게 하리라
이때 일왕(日王)이 인피 삼백장씩 조공하고 생각하니
매년 생각하라 가등(加藤) 일본이 망할것이니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연유(緣由)를 주왈하여
동래땅에 갖추고 군사 삼백명씩 범(犯)을 세우고74
늦쇠 삼만육천근과 덕석75 삼만육천근과
동철 삼만육천근과 구리 삼만육천근과
박속76 삼만육천근을 매년 조공(租貢)하고
부자(父子)관계를 베풀리라
각설(却說)77이때 의명천자가 조선에서 일본항복
받은때 문물(文物)보시고
조선국 벼슬 금자강녹 태후를 봉하시고
서산대사와 사명당이라 하시니
이름이 대국(大國)에 진동(振動)하더라
허허 이만 그치노라

우미인가라

천하선경(天下仙境) 강남국에 산도좋고 물도좋다
아황(娥皇)1미인 죽은후에 무산선녀2 놀던곳에
만고절색(萬古絶色)3 고운여자 우미인(虞美人)4이 새로났네
우공장의 따님이요 초패왕(楚霸王)5의 부인이라
미인얼굴 고우시고 미인태도 비상하다
단청(丹青)6으로 그려낸듯 대옥(大玉)으로 깎아난듯
팔자아미(八字蛾眉)7 고운모양 운무(雲霧)중에 명월이요
옥빈홍안(玉鬢紅顔)8 고운태도 추강(秋江)위의 반달이라
십오십육(十五十六) 모진시절 초패왕(楚霸王)을 만난듯이
장할시고 장할시고 우리대왕 장할시고
역발산(力拔山) 기개(氣蓋)9떠다 용천검(龍泉劍)10을 비켜들고
우주간에 횡행(橫行)11하여 음아질타(嚙啞叱咤)12 하는소리
어느검(劍)이 대처하되 한문사지 파산되고
유정장(劉亭長)13의 십만명마 수수사의 뭇서젓다
옛사마 범증(范增)14이는 유탁중에 도사되고
칼잘쓰는 항량(項梁)15이는 선봉장(先鋒將)16이 되었구나
동산의 기러기들 활촉17짓듯 날아들고
오추마(烏騅馬)18 지난말을 회마(回馬)19뒤에 높이타고
중원천자(中原天子)20 하라하고 서있는중 하올적에
외꽃같은 우미인은 어느 담아(淡雅)21 하오리까

[각주]

- 1) 화설(話說) : 중국식 소설에 쓰는 말로 우리나라에서의 ‘각설(却說)’과 같은 말. 옛 소설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는 말.
- 2) 임진년(壬辰年) : 선조 25년, 서기 1592년.
- 3) 갑진년(甲辰年) : 선조 37년, 서기 1604년.
- 4) 육도(六道) : 육계(六界)-불교에서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三惡道)와 수라, 인간, 천상의 삼계(三界). 상약(上藥) : 좋은 약.
- 5) 천문조화(天文造化) : 천체, 우주.
- 6) 천기(天氣) : 하늘에 나타난 조짐.
- 7) 서산대사(西山大師) : 1520(중종 15)~1604(선조 37). 조선 중기의 승려. 승병장, 속명은 최여신(崔汝信).
- 8) 지체(遲滯) : 머물러 있음.
- 9) 육환장(六環杖) : 승려들이 들고 다니는 고리가 여섯 개 달린 지팡이.
- 10) 승지(承旨) : 승정원의 도승지, 좌우승지, 좌우부승지, 동부승지의 통칭.
- 11) 짐(朕) : 임금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킴.
- 12) 시승(詩僧) : 시문에 능통한 중.
- 13) 일척중생(一擲衆生) : 한 번 던져 중생을 구제함.
- 14) 만사무심(萬事無心) : 걱정으로 다른 일에 정황이 없음, 무슨 일에도 정신을 안씀.
- 15) 상군(廂軍) : 임금의 거동 때 호위하던 군사. 결원(結怨) : 서로 원수가 되거나 원한을 품음.
- 16) 대원수(大元帥) : 전군을 통솔하는 군의 최고 통솔자.
- 17) 도리(道理) : 마땅한 방법이나 길.
- 18) 상재(上才) : 남보다 뛰어난 재주.
- 19) 사명당(四溟堂) : 1544(중종 39)~1610(광해군 2). 조선 중기의 승려. 속명 임응규(任應奎), 서산대사의 제자.
- 20) 신장(神將) : 화염신장, 술가(術家)에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귀신을 이룸.
- 21) 대희(大喜) : 크게 기뻐함.
- 22) 복지주왈(伏地奏曰) : 바닥에 엎드려 아뢰음.
- 23) 수사(首寺) : 한 도(道)나 군에서 으뜸가는 절.
- 24) 발행(發行) : 목적지를 향해 출발함.
- 25) 각도열읍(各道列邑) : 각 도(道)와 여러 고을.
- 26) 선문(先文) : 노문(路文)-공무로 지방에 가는 관리의 도착 예정일을 미리 그 곳 관아에 알리던 공문.
- 27) 양축(仰祝) : 우러러 축하함.
- 28) 봉명사신(奉命使臣) : 임금의 명에 따라 외국으로 가는 사신.
- 29) 납입(納入) : 불러들임.
- 30) 부사(府使) : 지방 행정 기관의 책임자.
- 31) 전별(餞別) : 떠나는 이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작별함.
- 32) 문호(文豪) : 뛰어난 문장가.

- 33) 선참후보(先斬後報) : 죄인을 먼저 처형한 다음 임금에게 아뢰.
- 34) 장문(狀聞) : 임금에게 아뢰는 글.
- 35) 선문(先文) : 중앙 관리가 지방에 출장 갈 때 그곳에 도착 날짜를 미리 알리던 공문.
- 36) 생불(生佛) : 덕행이 뛰어난 중으로서, 살아있는 부처로 숭앙받는 사람.
- 37) 시상사(詩詳事) : 시에 대한 상세한 지식.
- 38) 평운(平韻) : 평성(平聲)에 따른 상하의 30운(韻).
- 39) 귀글 : 두 마디가 한 덩이로 짝지어져 있는 글.
- 40) 등촉(燈燭) : 등불과 촛불.
- 41) 적실(的實) : 틀림없이 확실함.
- 42) 년짓 : 년지시-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 43) 삼경(三更) : 하오 열한 시부터 이튿날 상오 한 시까지.
- 44) 오시(午時) : 상오 열한 시부터 하오 한 시까지.
- 45) 주달(奏達) : 임금에게 아뢰.
- 46) 대경실색(大驚失色) :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변함.
- 47) 공단(貢緞) : 감이 두껍고 무늬가 없는 비단.
- 48) 명주(明紬) :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피륙.
- 49) 백목(白木) : 무명.
- 50) 미물(微物) : 변변치 못한 인간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51) 진중(珍重) : 아주 소중하게 여김.
- 52) 일간두옥(一間斗屋) : 단 한 칸의 작은 집.
- 53) 금지도벽(禁地塗壁) : 일반의 출입을 금지하는 땅. 벽에 종이나 흙을 바름.
- 54) 불면혼백(不眠魂魄) : 편히 잠들지 못하는 넋.
- 55) 개탄(慨歎) : 분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겨 탄식함.
- 56) 혼백(魂魄) : 정신, 넋.
- 57) 대경(大驚) : 크게 놀람.
- 58) 창해(滄海) : 넓고 푸른 바다.
- 59) 항서(降書) : 항복문서.
- 60) 사해신장(四海神將) : 온 바다의 귀신.
- 61) 황황급급(遑遑急急) : 허둥거리며 정신없이 몹시 급함.
- 62) 인끈 : 사슴의 가죽으로 된 끈.
- 63) 인피(人皮) : 사람의 가죽.
- 64) 조공(租貢) : 종주국에 때를 맞추어 예물을 바침.
- 65) 가등청정(加藤清正) : 임진왜란 때 선봉장을 맡은 일본 장수.
- 66) 사배(四拜) : 네 번 절을 함.
- 67) 배설(排設) : 연회나 의식에 쓰는 물건을 차려 놓음.
- 68) 탐재(貪財) : 재물을 탐냄.
- 69) 만경창파(萬頃蒼波) : 한없이 넓은 바다의 푸른 물결.
- 70) 조판당(調辦當) : 정리하여 조처함.

- 71) 만조백관(滿朝百官) :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
- 72) 계량부사(計量府使) : 계책을 만들어 내는 관리 또는 그 직책.
- 73) 천추(千秋) : 오래고 긴 세월.
- 74) 범(犯) : 적의 침범에 대비하여 경계함.
 - 1) 아황(娥皇) : 요(堯)임금의 두 딸 중 큰 딸.
 - 2) 무산선녀 : 중국의 전설에서 얼굴이 몹시 곱고 아름답다는 선녀.
 - 3) 만고절색(萬古絶色) : 세상에 비길 데 없이 뛰어난 미인.
 - 4) 우미인(虞美人) : 우희(虞嬉)라고도 함, 중국 진(秦)나라의 장수 항우(項羽)의 연인으로, 항우가 한(漢)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군사에게 해하성(垓下城)에서 사면초가의 막다른 상황에 다다르자, 최후의 주연을 베풀고 자결(自決)했다고 함.
 - 5) 초패왕(楚霸王) : 항우(기원전 232~202), 초나라의 왕.
- 75) 덕석 : 추울 때 소의 등을 덮어주거나 곡식을 말리는 멍석.
- 76) 박속 : 박 안의 씨가 박혀 있는 하얀 부분.
- 77) 각설(却說) : 말이나 글에서 이제까지 다루던 내용을 그만두고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림.
- 6) 단청(丹青) : 궁궐이나 사찰 등의 건축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림.
- 7) 팔자아미(八字蛾眉) : 가늘고 길게 늘어진 미인의 아름다운 눈썹.
- 8) 옥빈홍안(玉鬢紅顏) : 젊어서 피부가 곱고 혈색도 좋음.
- 9) 역발산(力拔山) :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힘이 산이라도 빼어 던질 만하고, 세상을 덮을 정도로 기력이 웅대함.
- 10) 용천검(龍泉劍) : 옛날의 귀한 칼, 보검(寶劍).
- 11) 횡행(橫行) : 이리 저리 마음대로 돌아다님.
- 12) 음아질타(嚙啞叱咤) : 화난 감정이 일시에 터져 나와 큰 소리로 꾸짖음.
- 13) 유정장(劉亭長) : 한나라를 세운 첫 번째 황제인 유방(劉邦, 기원전 256~195). 처음에 진(秦)의 장수로 사상정장(泗上亭長)을 지냈으므로 유정장이라고 함.
- 14) 범증(范增) : 고대 중국의 책사이자 정치가. 항우와 초나라를 위해 줄곧 유방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계속 실패하고, 오히려 유방의 모사 진평의 반간계에 빠진 항우에 의해 쫓겨났다. 항우에게 버림받고 천하를 떠돌다가 악성 등창으로 객사하였다고 함.
- 15) 항량(項梁) : 초패왕 항우의 숙부이자 진(秦)나라의 장수.
- 16) 선봉장(先鋒將) : 제일 앞에 진을 친 부대를 지휘하는 장수.
- 17) 활촉 : 화살촉, 화살 끝에 박은 쇠.
- 18) 오추마(烏騅馬) : 항우가 탔다는 검은 털에 흰 털이 섞인 말.
- 19) 회마(回馬) : 말을 돌려보냄, 돌아가는 편이 말.
- 20) 중원천자(中原天子) : 넓은 천하의 중심지, 중국 대륙을 다스리는 황제.
- 21) 담아(淡雅) : 맑고 아담함.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갑지늑이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